

쪽방촌 이웃 위로 ‘고향 사랑’ 독지가의 선행

본보 2025 캠페인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올해 초 광주 동구에 500만원 기부
한급 포인트 150만원 삼겹살 구입
들랑날랑센터서 60여명 점심 대접

타향에 살고 있는 독지가가 고향을 위한 기부
에 이어 답례품마저 이웃을 위로하는 데 써 지
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7일 오전 11시께 광주 동구 들랑날랑커뮤니
티센터에선 장대비가 내리는 바깥과 비슷한 빗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홍빛 삼겹살이 노릇노릇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와 함께 센터 안을 가득 메운 이 소리는 열
기 가득한 주방에서 땀이 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씹 없이 집게를 놀리는 어르신들의 수고로
만들어졌다.
잠시 후 시작될 ‘들랑날랑 삼겹데이’를 앞두
고 인근 쪽방촌 주민들이 하나둘씩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주방 바깥에선 잘 익은 수박을 큼지막

하게 자르고 단호박과 톳, 버섯이 듬뿍 들어간
‘영양밥’을 고루 섞으며 손님맞이에 바쁘게 움직였다.
오전 11시20분께 테이블 10여개의 빈자리가
대부분 채워지자 배식이 이뤄졌다.
배식 봉사에 함께한 임택 동구청장과 문선화
동구의장 등은 삼삼오오 모여 앉은 주민들에게
순수 삼겹살을 전해 드리며 “많이 드시고 건강
하시라”고 인사를 건넸다.
잘 익은 삼겹살이 도착하자 주민들은 상추에
마늘과 고추 등을 함께 넣어 씹을 먹으며 봉사
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였다.
쌈채소와 같이 놓인 묵은지, 버섯볶음, 콩나
물 무침 등 삼겹살과 궁합이 좋은 반찬들도 입
맛을 돋워 식사 내내 주민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초복을 사흘 앞두고 맛있는 점심 식사로 쪽방
촌 주민 60여명의 몸과 마음을 모두 위로한 이
날 행사는 익명의 독지가 A씨의 연이은 선행으
로 마련됐다.



17일 광주 동구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에선 익명의 독지가의 선행으로 쪽방촌 주민 60여명의 심신을 위로하는 ‘삼겹데이’가 열렸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올
해 초 동구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
했다.
동구는 A씨가 나고 자란 고향이며 현재 그의
어머니도 살고 계신 것으로 전해졌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해 기부자에겐 기부금
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제공된다. 이 포인
트론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다.

A씨가 150만원에 달하는 이 포인트마저 자신
이 아닌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길 원하자 동구
는 쪽방촌 주민을 위로하는 행사를 제안했다.
이에 호응한 A씨는 포인트를 사용해 삼겹살
과 채소, 수박 등을 직접 주문하며 행사 준비에
손을 보탤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A씨는 실명을 밝히길 한
사코 거절하는 대신 “다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
시길 바랍니다”는 마음만 짧게 전했다. /안재영기자



광주매일신문 ‘청년 미디어 직무 일경험’ 성과공유회

광주매일신문이 운영한 ‘청년 미디어 직무 일
경험 프로젝트’가 17일 오후 2시 본사 스튜디오
에서 성과공유회를 열고 8주간의 과정을 마무
리했다.
이날 행사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기자들
이 팀별로 기사와 영상 결과물을 발표하고, 그
동안의 취재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려졌
다.
각 팀은 ‘청년 시선으로 본 ○○○’이라는 제
목 아래 주제를 선정한 배경, 현장 사례, 주요 메
시지, 제작 소감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취재 기록을
보며 참여자와 참관자 모두가 청년의 시선을 따
라 지역 현안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공유회 이후에는 광주매일신문 임직원
들이 참여자들의 발표에 대해 의견을 전했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교육 수료증이 전달됐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
젝트가 청년들이 지역과 미디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
로도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실험적 프로그램
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광주서구 장춘화씨 ‘하나다문화 대상’ 여가부장관상

광주서구가족센터는 17일 “전날 오후 서울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하나다문화가정 대상 시상식’에서 결혼
이주여성 장춘화(49)씨가 대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구가족센터는 하나금융나눔재단이 주최
한 하나다문화가정대상 공모에 장씨를 추천, 심
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됐다.
장씨는 20여년 전 중국에서 이주해 한국사회
에 성공적으로 정착, 진취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 가정의 복지 증
진을 위해 봉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장씨는 “언어와 문화 차이를 겪고 사회 진출
에 두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도움을 주고 나
눔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광주서구가족센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더 많
은 이주여성이 함께 웃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혜경 광주서구가족센터장은 “하나다문화
가정대상 공모를 통해 많은 결혼이주여성의 안
정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장씨의 기여
가 빛을 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구 다
문화가족을 위해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글로
벌 리더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광주은행,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3억5천만원 기탁

광주은행이 치매로 인해 실종 우려가 있는 어
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광주시
에 3억5천만원을 기부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
기정 시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 구제길 광주사
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기부금은 광주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치매어
르신을 위한 배회감지기(스마트워치, 스마트
태그 등) 4천252개 보급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배회감지기 사업은 치
매어르신을 모시는 이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
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3년째 추진 중”이라며 “지
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사회복지공
동모금회의 개인 행사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
사이터’ 신규 회원 4명의 가입식도 열렸다.
강기정 시장은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유은학원총동문회장학재단, 장학금 3천여만원 전달

(재)유은학원총동문회장학재단은 17일 “광
주동성고등학교에서 유은학원 산하 4개 학교
학생 50명에 장학금 2천98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광주동성고, 광주여
상고, 광주동성중, 광주동성여중 등 4개 학교 교
장과 박규환 유은학원 총동문회 회장, 마성우
전 회장, 김영석 상임수석부회장, 김철남 광주
여성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은학원총동문회장학재단은 후배 양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올해는 성



적 우수자, 저소득가정 및 체육특기생 등에 장
학금이 수여됐다. /김다기 기자

광주매일신문, 신나라지역아동센터 NIE 3차 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
된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16일 광주 서구 신나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NIE(신문활용교육) 3
차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 2차 순회교육 때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
집 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들
을 배웠다.
교육에 참여한 이로하(마재초 5)·이로희(마
재초 3)·이로은(마재초 3) 학생은 직접 신문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궁금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 교육
이 마무리되면 학생들이 만든 신문을 공모해 시
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전남도,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최우수상’ 영예

전남도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열린 ‘2025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서비스 연계 분야 최우수상(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이 주관
한 공모전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건서
비스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 및 민간기관의 우수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전남건강서비스를 활용해 도서·농어
촌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직접 방문, 의료서비스,
복지상담, 보장구 수리, 푸드트럭 운영 등 통합 서
비스를 1천200여명의 장애인에게 제공한 ‘찾아가
는 장애인건강지킴이’ 프로젝트를 출품했다.



올해는 대상 복지관을 기존 10개소에서 12개
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재력인증센터
와 연계를 통해 인바디 측정 등 건강 체크 프로
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엄길훈 광주체고 교장 ‘대한체육회 표창’

엄길훈(사진 오른쪽) 광주체고 교장이 ‘대한
체육회 창립 105주년 기념 체육유공자’로 선정
돼 대한체육회장상을 수상했다.
17일 광주체육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엄길훈
교장은 지난 15일 서울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
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창립 105주년 기념식
에서 학교체육 진흥 부문 체육유공 표창을 받았다.
엄 교장은 1982년부터 33년 동안 중등 체육교
사, 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교육청 과장)
및 광주체고 교감·교장 등을 역임하면서 광주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특히 체육교사 근무기간 중 사이클 불모
지인 광주 지역 학교 사이클 감독을 맡아 양희진
·송경방 등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교육전문직 근무 중에는 합리적인 학교운동
부 운영을 위해 광주 관내 전체 운동부 육성학
교에 전임운동부지도자를 배치하고 학교운동
부 예산을 확대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운동부 훈
련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학교관리자 재직 중
에는 20개 종목 41개 종별의 운동부를 운영하는
광주체고에서 합리적 예산 편성과 집행 등으로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했다. /박희중 기자



목포경찰-목포시사회 ‘안전 의료환경’ 협약

목포경찰서는 지난 16일 경찰서 내 이준규출
에서 목포시의사회와 함께 ‘경찰 수사의 질 향
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병조 목포경찰서장과 김명원
목포시의사회장을 비롯해 목포경찰서 관계자,
목포시의사회 위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 대응과 엄정한 수사로 안
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적 전문성이 요
구되는 사건에 대한 목포시의사회의 자문 제공으
로 수사의 질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병조 목포경찰서장은 “의사회와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통해 의료기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목포시의사회장은 “협약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의학적 자문이 제공될 수 있도
록 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
고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여수경찰, 집회 질서유지 ‘하모니 조끼’ 활용

여수경찰서는 17일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 ‘하모니 조끼’를 제작·대여하고 있
다”고 밝혔다.
하모니 조끼는 질서유지인이 착용하고 현장
질서를 주도함으로써 참가자, 시민, 경찰 간 조
화를 이루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여수시청 앞에서 열린 300여
명 규모의 건설기계노조 집회에서 하모니 조
끼가 활용됐다. 출근 시간대 차량 통행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조끼를 착용한 이들이 자발적으
로 질서를 유지해 안전하게 집회를 마쳤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국가산단이 위치한
여수에서는 집회·시위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질서유지인 제도를 적극 활
용하고 자율과 책임 아래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